
WE GROW
WITH
GOOD &
RIGHT WAY

About This Report

SeAH HOLDINGS SUSTAINABILITY REPORT

2024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세아그룹이 아닌 세아홀딩스 및 산하 계열사의 내용을 담은 세아홀딩스의 첫 ESG STORY BOOK으로, ESG 경영에 대한 세아홀딩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세아홀딩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밀접한 소통을 강화하며 ESG 경영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 내 재무·비재무 성과 및 활동 보고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세 보고가 필요한 정량 데이터의 경우 2021년~2023년 3개년의 성과를 보고하였으며 일부 성과의 경우 2024년 상반기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원칙과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21의 요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특성에 적합한 주요 이슈 반영을 위하여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 본 보고서의 보고 범위는 재무적 성과의 경우 K-IFRS 연결기준 국내 종속회사를 포함하며, 비재무적 성과는 세아베스틸지주와 산하 계열사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항공방산소재), 세아특수강, 세아메탈, 세아M&S, 세아H&S, 세아네트웍스를 포함한 국내 사업장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취합에 물리적 제한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지표는 보고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일부 보고 범위와 상이할 경우, 주석으로 별도 표기 하였습니다.

제3자 검증 보고서의 신뢰성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64페이지에 수록하였습니다.

보고서 문의처 본 보고서에 수록된 세아홀딩스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세아홀딩스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 www.seah.co.kr
E-mail | seahholdings@seah.co.kr

Interactive Guide 세아홀딩스의 2024 ESG STORY BOOK은 보고서 내 관련 페이지로의 이동 기능이 포함된 인터랙티브 PDF로 발간되었습니다.

02 Intro

04 ESG Q&A

Special Feature

06 '2024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수상

08 Interview: 컴플라이언스팀

Overview

12 Brand Story

14 Core Value

16 ESG 체계도

18 ESG Vision

20 ESG Essentials

Grow with People

24 Interview: 연강흠 의장

28 HALLS Talks

Grow with Society

34 Interview: 박익숙 이사장

38 장학재단 소개

40 SeAH Academy

Grow with Earth

46 H₂ MEET 2023

50 Green Achievement

52 Interview: 세아혁신센터

54 Interview: 세아기술투자

56 Future of ESG

60 CEO 메시지

62 Outro

64 제3자 검증의견서



SeAH

Intro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이제 세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아는 더 아름다운 내일을 꿈꿉니다.
그리고 세아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갑니다.

ESG Q&A

'합정역에 있는 그 건물!' 하면 바로 생각날 만큼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자세히 알진 못했던 '세아' 세아그룹과 세아홀딩스에 대해 궁금한 이야기, 그리고 세아의 ESG 경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세아그룹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요?

세아그룹은 철강 제조에 특화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60년 이상 자동차, 건설, 기계, 조선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 핵심 소재를 공급해온 철강 전문 그룹입니다.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지주 양대 지주회사를 비롯하여, 특수강 제조 사업을 이끄는 세아베스틸, 강관 제조를 주도하는 세아제강 등 국내외 55개 계열사*가 있습니다.

*2024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일 기준 지주회사 체제 내 국내외 계열회사

세아홀딩스는 세아그룹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세아홀딩스는 자회사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전략 수립과 경영지원, 그리고 출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경영 전문화와 핵심역량 집중화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높이는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세아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아의 정직한 기업 문화를 계승하고, 브랜드 가치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어떤 기업으로 인식되기를 바라나요?

세아그룹은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기업 문화를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세아홀딩스의 ESG 경영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나요?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창립 이후 지금까지 세아그룹을 관통하는 주요한 기준은 '정직'입니다. ESG 경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중립 달성, 안전한 사업장 조성, 윤리·준법경영 추진,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에 대해 정직하고 바른 방식으로 세아의 ESG 방향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둡니다.

세아홀딩스 내부 이해관계자들과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세아홀딩스는 무엇보다 '직원이 행복한 기업'이 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기에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어요. 노사가 함께 만든 조직인 HALLS,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생각을 듣고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며, 개인의 성장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 파트너사에 대한 공급망 관리 관점에서 세아홀딩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세아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각 계열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정책을 수립합니다. 공급망 관점에서는 국제규범 준수 및 효과적인 공급망 관리 실현을 위해 '제3자 행동강령'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급망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이용가능한 고충처리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아홀딩스가 지역과 사회를 향해 전개하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후원, 임직원 자원봉사에 더해 사회적 단체 및 기업과의 연대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및 세아이უნ형문화재단을 통해 재능 있는 학술·예술 인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세아홀딩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윤리경영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등을 전담하는 컴플라이언스팀이 있습니다. ESG적 측면에서도 컴플라이언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니깐요. 특히 지주회사로서 컴플라이언스 개념을 전파하고 각 계열사에 맞는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지주회사로서 세아홀딩스가 계열사에게 전파하는 ESG 차원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ESG 체계를 정립하여 각 계열사가 대내외적으로 공통된 방향성을 가지고 ESG 경영을 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또한 계열사의 ESG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회사별 특성에 맞는 ESG 대응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수상'
세계에 인정받은
'세아그룹'의 올바른 가치**



세아홀딩스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에티스피어가 주관하는 '2024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중 하나에 선정됐다. 글로벌 기업의 윤리·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해 온 에티스피어를 통해 세아홀딩스는 '바르고 곧음'이라는 본연의 경영철학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기업윤리, 준법경영은 ESG의 중요한 지표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추구에 있어 핵심 요소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표준을 세우기 쉽지 않다. 이것이 정량화되고 또 인정받는 기준을 찾을 수 있을까? 지난 3월, 세아홀딩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국 에티스피어(Ethisphere)가 주관하는 '2024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에티스피어는 18년째 매년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윤리적인 기업을 선정하는 글로벌 기관으로, 기업의 윤리적 행동 기준을 정하고 이를 평가하고 있다. 에티스피어의 윤리 지수 분석은 기업의 윤리문화,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관행,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다양성과 평등, 포용 등에 대한 240가지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된다. 세아홀딩스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까다로운 윤리적 기준을 분석하고 개선하며 에티스피어에 도전했고, 모든 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에티스피어 등재는 세아홀딩스 컴플라이언스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컴플라이언스팀은 그룹 전체의 총괄적인 준법과 윤리 경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들은 세아홀딩스뿐만 아니라 세아그룹의 여러 계열사에도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윤리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에티스피어 등재는 세아홀딩스 ESG 경영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컴플라이언스팀은 다양한 계열사의 목적과 활동에 맞게 에티스피어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체계화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고 전했다. 등재 준비 기간 동안 글로벌 기준과 국내 기준을 조율해 나가며 그룹 차원의 준법 및 윤리경영 내부 관리 체계를 한층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번 등재는 국내에는 사례가 없었던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세아홀딩스의 에티스피어 등재는 ESG 활동과 성과 차원에서 많은 국내 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세아홀딩스는 강화된 준법과 윤리경영에 기반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건전한 동반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더욱 힘을 기울일 계획으로, 특히 세아홀딩스뿐만 아니라 세아그룹 모든 계열사가 함께 준법 및 윤리경영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나아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세아홀딩스의 또다른 윤리적 발걸음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Interview: 컴플라이언스팀 에티스피어 등재의 일등 공신, 세아홀딩스 컴플라이언스팀을 만나다

Q. 에티스피어 주최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는 어떻게 지원하게 됐나요?

A. 세아홀딩스 이태성 사장님이 에티스피어의 명성을 듣고 '우리도 해보자'는 의견을 내셨죠. 컴플라이언스팀이 설립 될 즈음 에티스피어 TFT도 함께 결성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에티스피어가 정한 기준과 수치를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Q. 주관 기관인 에티스피어는 어떤 기관인가요?

A. 미국에서 설립된 기관으로 벌써 18년째 선정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전 세계 20개국, 44개 산업 분야에서 총 136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상 세레머니를 위해 미국 현지에 갔을 때 수상자들의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해당 수상이 어떤 의미인지 더욱 체감할 수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 컴플라이언스팀 김정민 팀장



| 컴플라이언스팀 이건 대리

Q. 상당히 오랜 기간, 진득하게 준비해 온 걸로 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요?

A. 글로벌, 특히 미국의 기업 평가 기준과 국내의 기준이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언어가 영어이다 보니 질문이나 평가의 의도나 뉘앙스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팀 외에도 각 부서별로 협조를 구하고 그들의 자료를 모아 정리해야 했기에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했죠. 에티스피어 평가 기준의 세부 항목 점수까지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서 보완점이나 개선점을 자체적으로 찾아내는 일도 쉽지 않았죠.

Q. 세아홀딩스가 선정된 데에 어떤 요소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A. 내부적으로는 1~2년 만에 이뤄낸 성과는 아니기에 경영진의 지속적인 지지가 무엇보다 힘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차원의 윤리 기준에 맞춰 세아홀딩스는 개선이 되고 있는지,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을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잘 하는 분야와 항목을 더 돋보이게 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아홀딩스가 그동안 '준법 및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다양하게 활동한 결과들을 체계화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이를 내부 임직원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도 정립했죠.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 컴플라이언스팀 박준섭 대리

Q.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평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사실 저희는 윤리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공식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받거나 드러내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어요. 기업으로서의 당연하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윤리적, 준법적인 사항을 지켰을 때 기꺼이 박수를 받아야 하는 문화가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드러내는 방법을 통해 지향하는 바가 더 생기죠.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가치이니깐요.





| 컴플라이언스팀 정세호 수석

Q. 에티스피어에서 이야기하는 '성숙한 윤리 문화를 가진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매년 에티스피어의 평가 항목이 조금씩은 달라져요. 하지만 회사의 정체성을 관통하는 문화가 무엇인지,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시스템이 있는지, 그 안에서 리더십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은 확고한 것 같아요. 물론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인식 수준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들의 평가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 윤리적으로 성숙한 기업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더 필요한지 알 수 있죠.

Q. 에티스피어 선정은 세아홀딩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A. 에티스피어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윤리적 평가 측면에서는 '월드 베스트'라는 인정을 받은 셈이더라고요.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세아홀딩스의 가치에 부합하는 선정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선정을 통해 외부에서 기업의 평판이나 영향력을 판단·평가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에티스피어 선정 노하우나 방법 등에 대해 저희 팀에 컨설팅을 요청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어요.



Q. 이번 선정 이후, 세아홀딩스의 방향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A. 세아홀딩스가 일궈낸 성과나 노하우를 홀딩스 계열사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가 공유하고 또 이에 따라 글로벌 기준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이는 곧 그룹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세아홀딩스가 지주회사이다 보니 세아그룹과 혼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를 좀 더 인지할 수 있도록 정립하는 일에도 집중할 생각입니다.

Q. 컴플라이언스팀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컴플라이언스팀은 기업의 ESG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그 필요성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법률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리스크 발생 요인을 줄이고 준법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윤리 문화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지원과 강화, 그리고 이를 글로벌 기준으로도 정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Brand Story

세아라는 이름은 '세계 속 아시아 일류 기업'이 되고자 했던 꿈이었다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마음이 되었다.

1 담대한 꿈과 의지의 이름

세아의 이름에는 철학과 신념이 스며있습니다. 장차 한국을 넘어 '세계 속 아시아 일류 철강 기업'이 되고자 했던 담대한 꿈은 현실이 되어 철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원대한 의지로 확장되었습니다.

2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약속

세아는 철강 제조에 특화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60년 이상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핵심 소재를 공급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고의 품질과 혁신적인 소재를 향한 집념으로 철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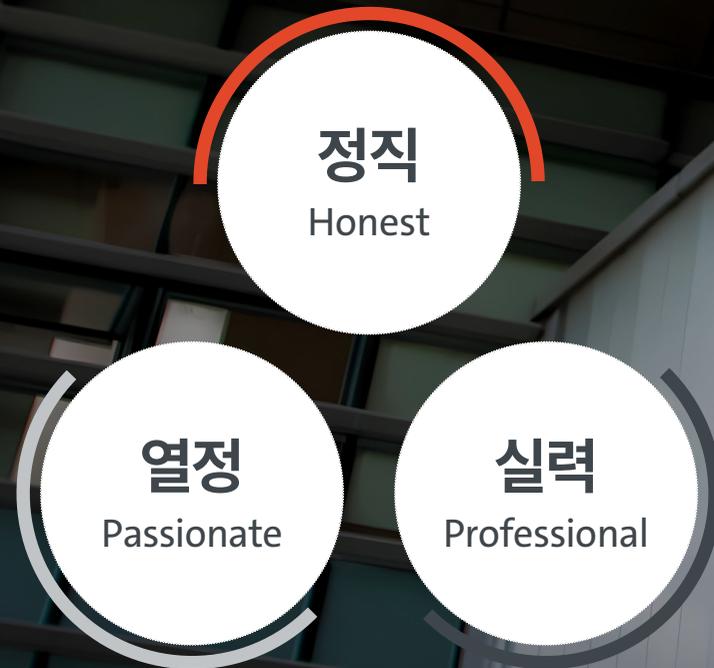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온 강관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특수강까지, 세아는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고민하며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제련해 나갑니다.

4 철과 같은 마음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공존과 상생을 실천해온 세아. 수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변하지 않는 철과 같은 마음으로 세아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변함없이 세아의 가치를 전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나갈 것입니다.

담대한 꿈과 의지의 이름 세아의 이름에는 철학과 신념이 스며있습니다. 장차 한국을 넘어 '세계 속 아시아 일류 철강 기업'이 되고자 했던 담대한 꿈은 현실이 되어 철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원대한 의지로 확장되었습니다.

Core Value



바르고 곧은 '정직'

세아는 바른 지혜와 행동으로 이상을 올곧게 세웁니다.

즐겁게 몰입하는 '열정'

세아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도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듭니다.

탁월함에 기반한 '실력'

세아는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재능을 공유하고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수합니다.

정직, 열정, 실력은 반세기 이상 성장하며 새겨진 세아의 DNA입니다. 모든 세아인은 이를 핵심 가치로 삼아 진정한 세아의 가치를 실현해 나갑니다.

ESG 체계도

'얼마나'보다는 '어떻게'를 고민합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직'은 세아의 오랜 핵심가치입니다.
세아는 앞으로도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모두와 함께 하는 올바른 성장, 세아가 함께하겠습니다.

ESG Vision

우리는 더 바르고, 선한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We Grow with Good & Right way

ESG Essentials

사람을 위한 성장
Grow with People



세아의 구성원은 선한 영향력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갑니다

사회를 위한 성장
Grow with Society



신뢰를 만들고 쌓아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지구를 위한 성장
Grow with Earth



다음 세대에게 맑고 깨끗한
지구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SG Vision



**우리는 더 바르고,
선한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We Grow with
Good & Right Way

올바른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세아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더 바르게, 그리고 더 선하게.

나와 주변 사람들, 사회 전체,
나아가 지구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아가 생각하는 올바른 성장입니다.

ESG Essentials

사람을 위한 성장
사회를 위한 성장
지구를 위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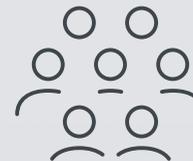
사람을 위한 성장
Grow with People



사람을 위해,
사람과 함께
성장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세아는 사람과 함께 멀리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공유하며 사람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사회를 위한 성장
Grow with Society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입니다

세아는 서로를 신뢰하며 존중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사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지구를 위한 성장
Grow with Earth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를
함께 누립니다

세아는 사람과 사회를 넘어, 우리의 지구를 생각합니다.
오늘의 지구, 그리고 다음 세대가 누릴 내일의 지구를 함께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지구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Grow with People

사람을 위한 성장

세아는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기에 세아홀딩스의 내부 구성원·외부 이해관계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Interview: 연강흠 의장

ESG 가치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세아홀딩스



세아홀딩스
연강흠 이사회 의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영대학 와튼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1년부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 연구 및 사회 활동을 해왔다. 기업재무와 자본시장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재무학회 회장과 한국경영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자본시장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기업지배구조의 모든 것'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Q 세아홀딩스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회의 일정을 계획하고 회의 안건을 설정하며, 회의 진행 방식을 관리합니다. 회의를 주도해 이사회들 사이에 협력을 촉진하고 토론을 조정하며 필요 시 부의 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투표를 진행하고요. 또한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이사회 구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이사회들을 선임하는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사회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사회의 운영 및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 전반의 개선을 꾀하고 회사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이사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무엇인가요?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구성된 그룹 회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관리하면서 회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아그룹이 추구하는 비전 및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아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방법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 전략과 계획을 논의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기업가치를 높이고,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과제도 그 일환입니다.

Q 이사회의 여러 안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있나요?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 가치를 창출하는가'입니다. 해당 안건이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지원하는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는지, 윤리적 기준과 법적 요구를 준수하는지 그리고 해당 안건이 기업의 수익성, 재무구조, 현금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과 회사의 리스크 프로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이사회의 역할이 기업 활동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사회는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핵심 기구입니다. 그러기에 회사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사회는 장기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개발해 수립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식별해 관리합니다. 또 경영진을 지원하고 조언하는 동시에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해 회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Q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나 경험을 활용하여 책임감을 갖고 진실성 있게 의견을 표현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지닌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과 법률을 준수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Q 이사회에서 달성한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면 소개 바랍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와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한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한 일, 징계 양정을 '면직'에 이르게 하는 3대 행위(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폭력 행위)에 대한 그룹 '무관용 원칙'을 수립한 후에 제반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내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이사회 차원에서 바라본 세아는 어떤 기업인가요?

세아는 회사를 창업하고 키워낸 故 이종덕 회장이 이룬 정도경영을 기본으로 하는 정직하고 강건한 글로벌 철강기업입니다. 철강 및 금속 관련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죠. 각 계열사는 높은 기술력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적 특성상 철강 및 금속 산업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아 경기 침체나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요인도 있죠. 따라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비용 효율성을 강화해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환경 관련 규제를 준수해 친환경적인 생산 방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ESG적 가치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가 ESG 원칙을 준수하고 관리하면 지속가능한 운영과 투자로 비용 절감과 수익성 향상을 가져옵니다. 더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장기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높일 수 있죠. ESG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긍정적인 평판을 구축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주, 고객, 직원, 공급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지원을 받고요. 회사가 직면한 장기적인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고 기회를 활용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며, 관련 규제 및 법률을 준수해 회사의 운영에 안정성을 더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ESG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긍정적인 평판을 구축합니다.”



Q ESG는 기업의 중요한 미래 아젠다입니다.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특히 ESG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사회는 주주들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ESG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요. 이사회 구성원들은 회사의 ESG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기여하며, ESG 관련 이니셔티브를 지원해 이를 이사회 회의 주요 의사 결정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가 직면한 ESG 관련 리스크를 식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줄이는 방안도 개발해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겠죠. 또한 ESG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해 나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ESG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Q 이를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도나 장치가 있나요?

이사회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5월에 이사회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사회 전체의 역할과 기능, 의사 결정 과정,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나 컨설턴트를 활용할 수 있고요. 평가는 1년에 한 번 설문지 또는 인터뷰를 통해 실시할 예정으로, 이사회와 이사회 구성원들이 역량을 높여 지속적인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HALLS Talks

진정한 '함께'의 의미 세아홀딩스 HALLS* 1기

*세아홀딩스 HALLS(Holdings ALL Speaks)

세아홀딩스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직원협의체. 사용자측 위원은 대표이사의 위촉으로, 근로자측 위원은 자원과 추천 및 선거를 통해 운영위원을 선정하며 임기는 3년이다. 2021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2기가 시작되었다. 운영위원은 총 7명이며 각 부서별, 세대별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 세아홀딩스 HALLS 1기 운영위원(좌측으로부터) | 조성재 대리 / 이유진 수석 / 이미정 팀장 / 이운상 팀장 / 이상근 수석 / 최지은 팀장
대담자 | 이운상, 이미정, 이유진

HALLS(홀스)가 출범한 계기는 뭐였나요?

이운상 정확히 말하면, HALLS가 2021년에 새로이 출범을 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구성원과 회사 모두 만족시켜보자는 논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회사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함께 제도를 만들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지를 경영진 및 직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채널을 노사협의회로 정한 것이며, 노사협의회를 새롭게 잘 운영해보고자 명칭을 'HALLS' 로 변경하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정 HALLS의 설립에는 무엇보다 임원진의 의지가 컸어요. 예산도 마련됐고요. 노사간 소통이나 이를 위한 조직은 투쟁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노사'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일종의 직원협의체로 운영하면서 의제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과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한거죠. 2021년 5월에 선거를 통해 운영위원을 뽑으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노사위원회와 HALLS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유진 HALLS가 출범하기 전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사 활동에 관한 회사의 방향성이나 앞으로의 노사위원회 조직을 이야기하는 설명회가 있었어요. 상생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또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목표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이었죠. 당시 설명회가 임직원들에게 상당히 좋은 인상을 주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어요. HALLS는 그런 토대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인지 결정 사항이 경영진에 의해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진행 관련한 사전 보고는 하지만요.

이미정 HALLS 1기 출범 후, 실제로 사내에서 크고 작게 바뀐 부분이 많아요. 무엇보다 운영위원끼리 자주 만나요. 정기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 이상으로 캐주얼한 미팅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만나다 보니 의견도 많이 나누고, 안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는 거죠. 다른 회사들의 노사위원회와는 분명 다른 부분입니다.



| 사용자위원 이운상 팀장

안건은 어떤 방식으로 상정되고 논의되나요?

이운상 공식적인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 있고, 정기모임은 한 달에 한 번, 그 외에 진행하는 수시 미팅이 있고요. 수시 미팅을 통해 나오는 여러 의견들이 안건이 됩니다. 안건 논의 후에는 의결사항과 협의사항으로 구분해요. 의결사항은 그 자리에서 결정이 필요한 안건, 협의사항은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주로 어떤 내용이 안건으로 이야기되나요? 그동안 실제 제도로 채택된 안건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진 사내 제도나 복지에 관한 안건이 많아요. 코로나 시기에 백신 휴가제를 도입했고, 시차 출퇴근제, 심리 상담 프로그램 도입, 연차 자가결재 같은 것들도 있어요. 사용하기 불편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없던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불필요한 제도를 없애기도 했죠.



| 근로자위원 이미정 팀장

HALLS에서 만든 제도를 임직원들이 잘 활용하고 또 만족하나요? 관련된 운영이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운상 HALLS에 인사가팀이 두 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인사팀의 일이 많은 영역이긴 하죠. 인사팀의 일도 실행에 방점이 있는데 HALLS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많아요. 실제로 구현된 제도를 보면서 저희나 직원분들의 만족도도 크고요.

이미정 많은 안건을 실현할 수 있었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의 안건이 1년 이상 논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주사인 세아홀딩스가 정한 제도가 그룹사 전체의 제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하죠. 하지만 실현된 안건은 많은 고민과 논의를 나눈 결과물이기에, 직원들이 진정 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HALLS가 다양한 세대와 니즈를 가진 임직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운상 HALLS를 통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설명회를 한다는 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복지 혜택 같은 것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왜 받게 되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모든 의견이 수렴되는 건 아닐지라도 몇 가지는 실제로 수정이 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소속감을 더욱 느끼는 것 같아요.

이유진 임직원들에게도 자신이 일하는 환경이 만족감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 가까이에서 HALLS라는 조직이 있고, 더 가까이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미정 MZ직원들이 생각보다 회사의 비전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싶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요즘의 젊은 직원들이 개인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하지만, 누구보다 회사의 성장을 통해 나의 성장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어하죠.



1기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운상 1기의 경우 미혼자나 다소 젊은 세대의 분들이 적는데, 다음 기수의 운영위원은 세대나 성별 등 조금 더 다양한 배경의 운영위원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유진 그렇다고 HALLS 1기의 의견이 다양하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사내 어린이집에 대한 안건도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이걸 개진한 분은 자녀가 없는 분이었던 거예요. HALLS는 누구나, 자유롭게 회사의 제도나 복지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죠.



| 근로자위원 이유진 수석

현재(2024년 5월 기준) HALLS 2기를 모집 중입니다. 새로운 운영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운상 모두 같은 입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정 지금도 자유롭고 열린 분위기이지만 자칫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 면으로는 불이익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물론 다들 본업이 있기에 그에 따른 시간 배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저희의 의견이 개진되고 또 개선되어 나간다는 사실이 무척 뿌듯하고 기뻐요. 회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Grow with Society

모두를 위한 존중과 믿음

세아는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러기에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기업이 속한 지역과 사회 모두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활동에 있어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합니다.

Interview: 박의숙 이사장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지난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오페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후원으로 이어진 세아그룹 故 이운형 회장의 뜻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박의숙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이사장이 말하는 오페라는 종합예술을 넘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향유하는 소중한 가치다.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시작된 오페라 후원은 조용하게, 단단하게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어요. 선대 회장님께서 '오페라'에 대해 주로 어떤 생각과 말씀을 하셨나요?

결코 형식만 갖추지 않았어요. 오페라단 이사장이나 후원자 역할을 하면서 한정된 임기의 명예직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진지하게 공부하고 주변에 전파 하셨죠. 오페라 관련 책들을 탐독하고, CD를 차에 갖고 다니며 계속 듣고요. 회장님과 함께 다니는 직원들도 귀가 트여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국립오페라단에서 준비하는 작품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리아를 하나하나 찾아서 들었고, 외부 클래식 강좌에도 매주 다니며 공부하셨죠. 회장님 손에 이끌려 클래식 강좌를 함께 들었던 지인은 이운형 회장님의 공부하는 모습이 입시 준비생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오페라의 매력은 뭘까요?

오페라만큼 음악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면서 관객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 장르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페라 하나에 모든 예술이 담겨 있다고 할 만큼 복합적이고도 종합적인 무대예술이라는 점이 큰 이유일 겁니다. 성악과 기악, 합창 등 모든 것의 앙상블을 한 작품 안에서 감상할 수 있지요. 오페라는 문학과 연기, 춤, 미술과 무대예술까지 녹아 있는 장르이니깐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 혹은 오페라 무대는 무엇인가요?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가장 좋아하는데, 특히 2005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의 무대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벨리니 생애 최고의 벨칸토 오페라이자 마지막 작품인 오페라 <청교도>도 좋아합니다. 올해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정기음악회에서 공연하기도 했죠.



오페라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페라는 작곡된 시기의 원어와 음악이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무대와 자막을 한 번에 보면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역사적 배경이나 내용 정도만 훑어보고 관람해도 오페라를 더욱 즐겁게 관람할 수 있으실 거예요.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나요?

2015년부터 매년 정기 공연으로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오페라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예술가들의 공연 활동 및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죠. 특히 이 공연에는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성악가들과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함께합니다. 한편 지역 음악회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는 지역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군산, 부산, 창원, 충주 등에서 개최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죠. 우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오페라 인재 후원 사업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음악총서 발간 등 음악학 연구를 지원합니다. 음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안정적 저술 환경을 제공하고 예술을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클래식 악기,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 연주자 대상의 후원을 하는 재단은 많지만, 학자들을 지원하는 곳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는 더욱 유의미한 활동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함께 발간하는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총서'는 학사·석사생들의 교과서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세아 내부 구성원과도 오페라를 공유하고 관람 기회를 넓히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본사 건물에 조그마한 오디토리움이 있어요. 작게나마 거기서 직원들에게 직접 오페라에 대해 강의해 주면서 저도 함께 공부해 오고 있는데, 2시간 강의를 위해 한 달 넘게 공부를 해요. 직원들도 배울수록 오페라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요. 이제는 회식 자리에서 딱딱한 얘기 대신 '그 오페라의 아리아는 어떻게 들었는지'를 같은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르치는 것도, 그런 피드백도 너무 행복합니다.

재단에서 주최 혹은 후원하는 작품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나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정기 음악회는 대중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을, 지역 음악회의 경우 관객들이 익숙하고 비교적 쉬운 오페라 작품을 선보입니다. 예술단체 후원은 해당 프로젝트의 의미와 오페라의 향후 확산과 효과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요. 예를 들어 한국 오페라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 국립오페라단의 '성악콩쿠르' 후원 등이 있습니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의 큰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설립 후 재단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권위 있는 콩쿠르 입상 경력이 있는 성악가나 오페라 인재 가운데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오페라 인재로 선발되게 됩니다. 한 번 인연을 맺으면 5년까지도 후원을 이어갑니다. 저는 오롯이 정통 클래식의 길을 걸어갈 인재를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재단의 후원 방향성을 순수 예술에만 두고 싶은 거죠. 대한민국 오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에서 후원하고 있는 인재 중 소개 또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인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현재 후원하고 있는 오페라 인재 중 한 명인 테너 손지훈 씨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2018년부터 후원을 시작했고 2023년 6월 세계 3대 콩쿠르라고 불리는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한 인재예요. 콩쿠르 우승 후 주요 뉴스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오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이운형 회장님을 언급했던 기억이 나네요. 손지훈 씨는 올해 정기음악회 <청교도>로 예술의전당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손지훈 씨의 한국 오페라 데뷔 무대였죠. 이후 손지훈 씨는 올해 4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 주역으로 출연했어요. 앞으로 바르셀로나 리세우 극장에서 열리는 <청교도>, 스웨덴 왕립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루살카>의 주역으로도 출연할 예정이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단을 운영하고 문화 사업을 전개하며 가장 뿌듯하고 보람되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무료 지역음악회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를 할 때 그런 순간을 많이 접해요. 음악회 로비에서 사람들과 인사할 때면 오페라를 생전 처음 봤다는 사람도 여럿 만납니다. 그 때마다 제 손을 잡으며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줘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세요. 또 코로나 시기에 유럽에서 생활하고 있던 예술가들에게 '코로나19 특별 후원금'을 만들어 소정의 후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나중에 감사의 편지를 전해오거나 귀국 후 직접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을 때 뿌듯하고 몽클하더라고요.

앞으로 세아이운형문화재단에서 전개하게 될 문화 사업과 계획 등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해석과 음악의 난도, 제작비 이슈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잘 올리지 못하는 오페라 작품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체코어 오페라인 드보르자크의 <루살카>, 2026년에는 여왕 3부작이라 불리는 오페라 중 도니체티의 <로베르토 데브뢰>라는 작품을 선보일 계획에 있습니다.



장학재단 소개
진정한 후원의 의미,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세아그룹 창업자인 故 해암 이종덕 명예 회장이 사재를 들여서 만든 공익법인이다. 1992년 설립해 올해로 서른두 해를 맞았다. 장학사업을 중심에 두면서 학술연구와 교육기관 지원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사람의 성장을 돕는 일은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제련(製鍊) 과정만큼이나 꾸준한 노력과 관심,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단은 단기적인 성과나 결과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또한 재단의 모든 활동은 세아를 위한 홍보나 경영 전략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언제나 중심에 두는 건 그저 '사람'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신진 연구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유도,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 어떠한 목표 달성 요구나 개입 없이 관찰자의 자세만 갖는 것도 모두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이다.

“재단의 목적은 국내의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재단사무국 팀장

재단의 장학생은 대부분 공학 분야 인재들이다. 세아의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공학 분야 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하되 세부 전공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탄력적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추가 장학생을 선발했고, 3년 전에는 창업 장학금을 신설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해마다 재단의 장학생 모집에는 많은 학생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곤 하지만 장학금을 신청하는 기준이나 조건은 까다롭지 않다. 다만 방향은 명확하다.



“장학생은 세아와 재단 공통의 핵심가치인 정직·열정·실력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건강한 사고방식과 성실함을 지니고 있는지를 봅니다. 즉 세아와 닮은 인재들을 선발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을 믿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류 심사, 시심사, 면접심사 등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세아를 닮은 최적의 인재를 선발한다. 성장형 인재를 알아보는 눈, 단단히 믿고 응원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지난 32년 동안 대한민국의 공학 인재들을 후원해 온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동력이다.

세아의 선배 장학생들 중에는 사회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이들이 많다. 그들은 재단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특히 재단 장학생이 되면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 캠프와 견학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에 장학생과 장학생, 선배와 후배, 재단과 장학생 사이에 일종의 선순환 고리가 끊임없이 생겨난다.

재단은 앞으로 창업 인재 지원에 더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근 청년들이 취업이나 연구 못지 않게 창업에도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니라 청년 인재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과 지지를 보내주는 것, 이를 통해 청년이 성장하고 원하는 꿈을 이루며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도 변치 않을 재단의 꿈이다.

SeAH Academy

미래 탁구 인재를 위한 교두보, 세아 아카데미

세아와 탁구가 만나다

경쾌한 공소리가 체육관 안을 가득 채운다. 체육관 한쪽, '세아 아카데미'라 쓰인 유니폼을 갖춰 입고 공과 상대방에만 집중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유독 눈에 띈다. 세아에서 미래 한국 탁구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세아 아카데미 소속 유소년 선수들이다. 세아 아카데미는 2022년 대한탁구협회와 세아의 MOU로 시작됐다. 국내 탁구 저변 확대와 미래 탁구 인재 양성을 위해 세아홀딩스는 탁구 발전의 거시적인 방법을 고민한 끝에 대한탁구협회와 유소년 선수 육성을 목표로 세아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지난해 3월 정식으로 유소년 선수 모집을 시작했으며, 교육과 훈련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최초의 기업 후원 탁구 인재 양성

어린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후원의 탁구 아카데미 운영은 세아 아카데미가 국내 최초 사례이다. 선수들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 남녀 선수들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기본기를 키우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굳이' 어린 선수들에게 이런 노력을 들이는 데에는 세아의 거시적 안목이 담겨 있다. 당장의 성적을 내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탁구는 물론 인성과 지성을 갖춘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를 키워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세아 아카데미는 선발된 유소년 선수들에게 인성과 외국어까지, 연령별로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동시에 유소년 탁구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세아 아카데미 선수들의 성장을 통해 향후 탁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수 선발 과정은 꽤나 까다로웠다. 탁구 국가대표 감

독을 포함해 대한탁구협회 기술연맹 관계자 등 전문가 10여 명의 심사를 거쳤으며, 체력테스트와 탁구 기술, 자기 소개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했다. 선발된 선수들은 하교 이후 오후와 주말에 집중 훈련을 실시하며 해외 훈련 연수, 멘토링 과정, 합동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세아 아카데미 선수들은 유소년 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학년별 대회나 지역 대회 참여를 통해 선수 대부분 입상권에 들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세아가 후원하는 WTT(World Table Tennis) 국제 대회의 에스콧 키즈 및 세계적 선수들에게 마스터 클래스를 받는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미래 탁구 금메달을 위해

탁구에 대한 세아의 지원은 단순히 기업 홍보나 이미지 제고, 성과에 있지 않다. 이미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소년 탁구 인재들이 세아의 후원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받고 있다. 세아 아카데미의 발걸음은 탁구 분야, 나아가 스포츠 분야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의 지원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아의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거친 세아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들은 분명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훌륭한 탁구 선수로 성장할 것이다. 세아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에,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유소년 선수들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Mini Interview



| 세아 아카데미 조용순 감독

감독으로 언제, 어떤 계기로 합류하게 되었나요?

대한탁구협회에서 국가대표 후보 선수 전임 감독을 역임하던 도중, 2022년 12월에 대한탁구협회와 세아가 MOU를 맺은 후 합류하게 됐어요.

주로 어떤 선수들이 모여 있나요?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탁구를 해왔거나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대전,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모였고요. 현재는 안양에서 아카데미가 진행되기에 가족 전체가 이사를 오기도 했지요. 그런 환경이 감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30명의 적은 수를 모집했고, 객관적인 선발과정을 통해 지금의 10여 명의 선수들이 모이게 된 거죠.

세아 아카데미의 특징, 장점 등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이 눈앞에 보이는 성적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아는 뿌리부터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져요. '우리가 더 지원할 건 없느냐'는 자세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요. 특히, 단기적 성적보다는 유소년 선수들을 장기적으로 훌륭한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탁구 선수로 육성하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기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아가 오래 전부터 탁구에 후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촉망받는 선수들도 세아의 후원을 받고 있죠.

남자는 이승수 선수, 여자는 허예림 선수가 있죠. 이승수 선수는 세아가 초등학교 때부터 후원 중이고, 허예림 선수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지금 세계 대회에서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탁구는 어린 선수가 기술로 성인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후원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유소년 꿈나무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서로 들어오고 싶어해요. 아마도, 세아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훈련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유소년 선수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저 역시 사명감과 책임감이 크고,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 위주로 세아 아카데미 선수를 선발을 했기에 추가 인원을 모집하는 건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이후 한두 명 정도 더 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훈련해 나갈 계획인가요?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아카데미에서 유소년 팀을 만들어서 아카데미와 유소년 팀으로 나누어 이어갈 생각이예요. 이를 위한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탁구는 실력이 뛰어난 선수의 경우 고등학교 때 바로 실업팀으로 갈 수 있거든요.

감독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나 꿈은 무엇인가요?

탁구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메달 종목으로 탁구가 부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2032년, 2036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또 탁구 유소년 팀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좋은 성공사례가 되면 분명히 주목받고 탁구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row with Earth

지구 환경을 위한 발걸음

지구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더 맑고 청정한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세아는 각 사업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방법을

찾고 실행합니다.

H₂ MEET 2023

A Beautiful Wave, inspired by SeAH

차세대 에너지 수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세아의 신성장 동력

차세대 에너지는 각 산업 분야를 포함해 지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숙제이다.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2023년 9월 킨텍스에서 열린 'H₂ MEET' 전시회는 세아의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다. H₂ MEET은 수소 생태계 전반의 공급사슬 관련 산업 전시로, 세아는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세아항공방산소재, 씨티씨 등 6개 사의 통합 부스를 마련해 그룹의 수소 산업 관련 제품 및 기술 역량을 선보였다. 수소 산업은 민간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다양한 정관계 이해관계자들이 H₂ MEET 전시회를 방문했으며, 세아의 부스는 H₂ MEET 전시회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부스로 평가받으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세아는 'A Beautiful Wave, inspired by SeAH'를 콘셉트로, 투명 아크릴 파이프를 활용해 부스 외관을 수소 산업의 상징인 '물의 파동'으로 형상화했다. 부스 정면에는 세아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 수소 생산자 및 유통자, 최종 사용자가 상호 연결되고, 수소 생태계가 최종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내용의 미디어 아트를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세아가 생산하는 수소 관련 소재 및 다양한 제품들은 수소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로, 세아가 꿈꾸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세아는 수소 생태계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 등 공급사슬 전반을 연결시키는 다양한 수소 파이프 및 부품 공급을 통해 수소 생태계의 혈관 역할을 자처하며 첨단 금속 소재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세아는 동시에 2021년 발족한 'H₂ 비즈니스 써밋(H₂ Business Summit)'에도 회원사로 참여하며, 글로벌 수소 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H₂ 비즈니스 써밋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협의체로, 이 활동을 통해서도 R&D 투자는 물론 여러 기업과의 협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철강으로 산업 전반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세아에게 수소 에너지 개발은 미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의 비전이다. 세아는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발맞춰 끊임없는 기술 연구를 통해 해상풍력, 전기차 등 새로운 대체 에너지 시장에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세아의 약속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특히, 인피니티 미러를 통해 수소 생태계 내에 적용되는 다양한 파이프 및 피팅류 제품을 생산, 저장, 이송, 활용 등 총 4가지 카테고리 로 구분해 감각적으로 구성한 제품 존(Zone)은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수소는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수소 고유의 팽창하는 성질 및 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소만의 물질적 특성으로 인해 첨단 소재 및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 특수 금속 소재가 수소 생태계 전반에 사용된다. H₂ MEET 전시회에서 세아는 특수 금속 소재인 스테인리스 및 알루미늄 소재 로 생산한 다양한 파이프 및 수소 관련 부품을 선보였다.



실제로, 세아베스틸지주 산하 4개사는 내수소취성을 향상시킨 특수 강 및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합금 소재와 피팅·밸브 등 배관 및 접합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아창원특수강이 생산 중인 수소 산업용 316계 스테인리스 봉강, 용접 부위 없이 생산한 316L 스테인리스 무게목 강관이 주목을 받았으며, 수소 자동차와 충전소의 연료 공급 튜브로 공급되는 씨티씨의 스테인리스 정밀 관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도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알루미늄 합금 소재의 수소탱크 부품과 수소 자동차 컴프레셔를 등을 전시하며 수소 생태계 전반의 무궁무진한 소재 경쟁력을 알렸다.



Green Achievement

세아의 ESG를 실천하는 세아업적상 수상작

세아업적상

한 해 동안 괄목할 만한 업적을 수상한 팀에게 수상하는 '세아업적상'은 1997년부터 매해 1월,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선정된다. 대상과 금상, 은상, 특별상 등의 수상 부문이 있으며 지난 25년 동안 7팀만 대상으로 선정됐을 만큼 선정 기준(정량적·정성적)이 까다롭다. 2023년에도 각 계열사의 후보 추천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5개의 팀이 선정됐으며, 특히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환경과 관련된 업적이 금상과 은상으로 선정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23 세아업적상 금상

세아창원특수강 | '그린 제강 신기술, 에코-세로'¹⁾

'그린철강'으로의 전환은 이제 필수적이면서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에 따라 철강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전기로 방식의 공정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기로의 탄소배출량을 더 줄일 수 없을까?라는 의문을 바탕으로 '에코-세로(ECO-SeRO)'라는 친환경적인 전기로 기술을 탄생시켰다. 전기로는 철스크랩과 합금철을 전기로 녹여 쇳물을 만드는 설비로, 전기 아크를 통해 발생하는 열과 더불어 산소가 사용된다. 전기로 내부에 산소를 불어넣어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3제강팀은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공정없이 전기 아크 열만으로 스크랩을 녹이는 무산소 조업기술을 개발하여, 제조원가 절감은 물론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24%나 저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이번 개발은 저산소 조업 기술을 개발한 이후 이룬 또 하나의 성과로, 세아창원특수강의 기술력과 더불어 단단한 친환경 프로세스 시스템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수상팀 세아창원특수강 3제강팀

1) ECO-SeRO(SeAH non-Environmental CO₂/NO_x zeRO):
세아창원특수강 제강공장의 친환경적인 전기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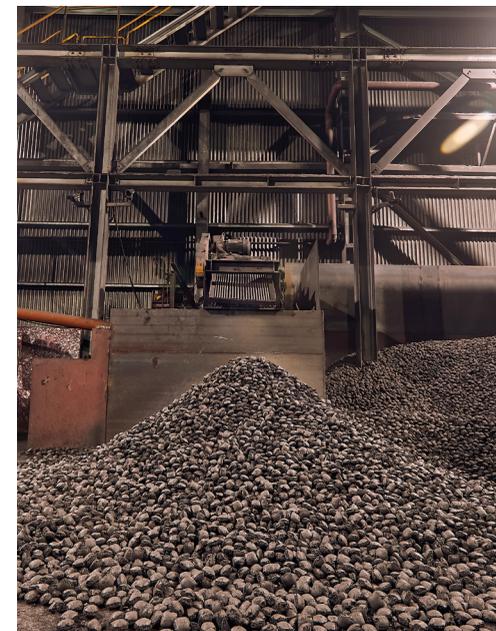
2023 세아업적상 은상

세아베스틸 | 부산물을 활용한 '스크랩 대체재'

철강 산업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핵심 소재인 스크랩(고철)의 활용은 세아에게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이슈다. 말 그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러나 환경을 해치지 않는 '그린 철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세아베스틸은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철(Fe) 함유 부산물을 재활용하고자 BRM(Briquette for Reduced Metal)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개발과 생산, 적용까지 장장 4년 여의 시간이 걸린 이 기술을 통해 세아베스틸은 자체 자원순환 프로세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철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BRM은 분진과 슬러지(오니) 등 철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는 다양한 부산물에 환원제와 유연탄 등을 섞어 과 형태로 만든 것이다. BRM을 전기로에 투입하면 철스크랩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철이 만들어진다. BRM 사용을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 특수강의 원재료인 철스크랩 대체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특허 등록을 마친 BRM은 매년 30억 원 이상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세아베스틸은 BRM 원료 적용을 확대하고 BRM 탄재의 바이오매스 전환과 투입 효율 극대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전기로 폐열을 활용한 BRM 예비환원 시스템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상팀 세아베스틸 공정연구센터, 제강생산실, 자재관리팀, 구매1팀



Interview: 세아혁신센터

미래를 위한 세아의 실험실
세아혁신센터

| 세아혁신센터 김수진 센터장

세아의 잠재력을 발견하다

어느 사업도 영원히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산업과 기술, 환경은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한다. 철강 산업으로 단단한 디딤돌을 쌓아 올리고 있는 세아 역시 이런 시대 변화와 내부 혁신을 고민하며, 기존의 사업이 가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려 한다. 세아혁신센터(SeAH Innovation Center, 이하 SIC)는 이런 배경 속에서 2019년 1월 탄생했다. SIC는 세아그룹의 각 분야별 인재들이 창의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등 주요 계열사 핵심인재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이를 통해 SIC에서 나온 제안을 현업과 현장에서 적용하고 구체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띄고 있다.

Green Steel을 향한 도전

SIC 방향성의 한 축에는 지속가능성, ESG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적인 이슈가 철강업의 중요한 화두인 만큼, SIC는 세아그룹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선점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수소 산업,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발전,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및 탈탄소 제강, Material recovery·recycling 등에 대한 기술 동향 분석 및 투자 검토를 수행하며 사업 혁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사업 혁신뿐만 아니라, 현재 각 공장이 직면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적 측면의 혁신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기술 검토 및 실증 협약 체결, 이산화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 구축, 철스크랩을 대체할 수 있는 직접환원철 사용 타당성 검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김수진 센터장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시장의 정의와 경쟁의 규칙이 바뀌는 신호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본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뿐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고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경제적 돌파 방향을 예측하고 세아의 신사업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SIC는 세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SIC에서는 제조업 현장의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도도 활발하다.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포착, 해당 작업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키고 데이터화해 교육과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벤처를 설립하였고 최근에는 한국을 넘어 미국 철강회사와 건설사 등의 작업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혁신의 시작과 끝

SIC는 새로운 세아, 더 강한 세아를 목표로 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행과 전파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전과 성장을 장려하고, 발전적으로 소통하며 협업하는 SIC의 일하는 문화와 구성원 역량 개발 노력이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세아혁신센터 김수진 센터장은 "세아인 혹은 세아 출신의 인재라면 사업적, 운영적, 조직 문화적 관점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나 자신을 넘어 모두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SIC의 또 다른 목적을 짚었다. 임직원들은 실제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것을 체감하며 '모두가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청사진'을 목도하게 된다. SIC의 혁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펼쳐질 세아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Interview: 세아기술투자

세아의 대내외적 가치를 높이는 세아기술투자



01

철강에서 시작한 미래 방향성

‘철강’이라는 전통적 사업 영역을 영위하는 세아에게 성장과 혁신은 더욱 필수적이다. 지주회사로서 세아홀딩스는 내부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자본 시장에서 전략적·재무적 활용가치가 높은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로 활동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2년, 세아기술투자를 설립했다. 이는 그룹 차원에서 내부적 투자에 대해 리소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외부 투자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도 좀 더 종합적인 판단을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또한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협업이기도 하다. 세아기술투자는 전략적 성장과 상생을 위한 밑그림인 셈이다.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세아기술투자는 앞서 등장한 세아혁신센터와도 연계된다. 세아혁신센터가 아이디어와 문제제기 등을 통해 진보를 꾀한다면, 이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외부 협업 모색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검토하는 것이 세아기술투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세아기술투자의 김철호 대표이사는 “세아기술투자에서 업무 진행 시 중요한 기준은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협업 부서 및 임직원들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니즈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세아기술투자는 전략적 투자자(SI) 측면에서 산업의 트렌드와 니즈 등을 파악하는 한편, 금융적 측면에서 투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세아기술투자의 가시적 성과

법인 설립 이후 세아기술투자는 2023년까지 3건의 펀드를 결성했는데, 3건 모두 그룹의 ESG 경영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체와 투자를 진행했다. 투자 검토 단계부터 유관부서들과 교류를 통해 기술검증 및 사업타당성을 논의했고, 이를 통해 탄소 저감 및 친환경 제품 개발 추진,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의 협업을 이뤘다. 구체적으로 타이어에 들어가는 카본 블랙과 기름을 분리하는 기술을 가진 엘디카본, 니켈 폐수를 재활용하는 리텍에 투자해 세아의 철강 소재와 생산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전개하는 삼정개발을 인수해 여러 폐기물과 폐수를 업사이클링하고 있다. 이렇게 세아기술투자는 산업재해, 건축 등 세아의 사업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업체와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수 등을 진행하며 전략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 특성상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도 세아기술투자의 임무로, 특히 2차전지나 반도체 등의 소재처럼 철강 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와 관련한 사업, 그중에서도 리사이클 관점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02



세아기술투자 김철호 대표이사

03

전통과 미래의 접점을 찾는 일

세아기술투자는 그룹 내 CVC로서 설립 취지에 맞게 전략적 성과를 내면서도 투자회사로서 균형잡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끊임 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더욱 까다롭고 꼼꼼하게 투자 검토를 하고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유연한 사고와 소통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 이들의 과정은 업에 대한 이해와 열린 자세가 전제가 되어 있다. 아직 설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시적, 기술적 성과와 시너지를 만든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세아기술투자는 무엇보다 CVC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도 있다. 실제로 CVC를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현 상황을 보자면 더욱 그렇다. 현재 단일 프로젝트 펀드와 블라인드 펀드 두 가지로 구분해 차근차근 앞으로를 준비하고 있으며, 속도와 기간 그리고 필요에 따른 전략적 투자와 협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들의 사례가 동종 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만하다.



세아기술투자 김재룡 본부장

Future of ESG

세아인들이 말하는 세아의 ESG



세아의 슬로건인 '세상을 아름답게'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나요? 개인적으로 혹은 기업의 임직원 입장에서요.



세아홀딩스 법무팀 신지혜 변호사

세아의 슬로건인 '세상을 아름답게'는 제가 세아에 입사 준비를 하면서 몇 번이고 되새기며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대목입니다. 기업 문화를 통해 세상이라는 큰 조직 안에서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는 하나의 작지만 강한 조직이길 원했고, 선하고 정직한 기준으로 경영되는 회사이길 기대하면서 입사했습니다. 지금은 세아의 구성원으로 몸담은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슬로건을 체감하는 여러 사례를 경험함으로써, 보다 일할 맛이 나는 조직임이 틀림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중입니다.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 김민호 책임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표현한 임팩트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철강 전문 기업이 친환경 경적, 사회공헌적으로 호감가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세아'라는 이름의 느낌과 더불어 각 글자를 따서 만든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키워드가 자연스러운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미래 화두인 ESG에 대해 평소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세아특수강 마켓솔루션팀 김윤혜 선임

몇 년 전만 해도 ESG는 선택적 접근이 가능한 분야로, 친환경에 특화된 기업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영역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2050 탄소중립 목표가 본격화되면서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과 ESG 준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탄소배출과 밀접한 철강 산업에 근무하면서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었고요. 특히 저는 영업팀과 마케팅팀을 거쳐 마켓솔루션팀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고,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룹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ESG 가치 중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아베스틸 환경팀 안재찬 차장

기후변화 규제 대응입니다. 세아베스틸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이 기업의 중요한 전략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달성여부가 세아베스틸의 기업가치 및 영업활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활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철강 산업은 생산공정 특성상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담당부서에 현장까지 더해, 내부감축과제 달성에 집중하기 위한 전사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ESG 차원에서 세아가 지속적으로 잘 수행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나 퍼포먼스, 정책, 이벤트 등이 있나요?

세아베스틸지주 IR팀 이나래 과장

개인적으로는 준법경영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내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중심 경영을 추진하고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임직원들이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도 인상 깊습니다. 또한 차등 배당, 배당 정책 발표 등 주주친화적 경영 활동도 세아가 지속적으로 잘 수행해오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아홀딩스의 새로운 ESG 가치에서 가장 와닿는 슬로건은 뭔가요?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실 이윤아 실장

'사람을 위한 성장(Grow with People)'입니다. 사회(Grow with Society)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지구(Grow with Earth)라는 무대에서 살아가는 이들 또한 '사람'이기에 사람을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이 다른 슬로건들을 아우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임직원'이라는 단어보다 '세아인'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지닌 세아홀딩스의 ESG 철학을 잘 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세아의 구성원들이 서로 선한 영향력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간다'는 방향성은 세아 최고경영자들의 철학과도 깊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ESG는 뭔가 새롭고 특별한 과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수없이 해왔던 많은 일에 대해 표현하는 방식이 추가되었을 뿐, 특별한 전공지식과 전문역량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ESG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내려놓고 각자의 위치에서 더 많은 도전과 시도를 행한다면 우리를 둘러싼 껍질을 깨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ESG는 세아에게 어떤 점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될까요?

세아베스틸 ESG기술센터 김성유 센터장

그룹 계열사 각각의 장단점과 시장 포지션이 다르겠지만 ESG는 우리가 더 나아가고 앞설 수 있는 기회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미 몸집이 비대해진 제조업은 ESG 측면에서 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귀찮고 힘든 과정이 아니라, 경쟁력을 확보해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여 더 많이 시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ESG는 뭔가 새롭고 특별한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수없이 해왔던 많은 일을 표현하는 방식이 추가되었을 뿐, 특별한 전공지식과 전문역량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ESG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내려놓고 각자의 위치에서 더 많은 도전과 시도를 행한다면 우리를 둘러싼 껍질을 깨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거시적인 환경 보호나 클린 에너지 등의 측면에서 사내에서 행해지는 작은 실천들도 중요합니다. 사내 제도나 인식 차원 혹은 개인이 행하고 있는 ‘환경을 위한 실천’이 있나요?



세아창원특수강 환경팀 최윤영 부장

환경팀 팀원으로서 친환경적 생산을 도모할 수 있는 평가제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정이나 설비, 자재 도입 전 실시하는 ‘안전환경사전심사’나 실제 공정과 설비, 자재 변경으로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비정기환경영향평가’를 꼼꼼히 시행하려고 노력 중이며,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힘써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기회가 닿을 때마다 환경교육 시간을 활용해 임직원들에게 환경을 비롯한 ESG의 의미를 공유합니다.



세아베스틸 동반성장팀 양선진 대리

ESG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은 모든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그룹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황은 환경적 측면과 지배구조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금 시장에 비춰보면 이에 대한 대응능력은 기업의 지배구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기업의 경쟁력이 갖춰져야 하고요. 그 경쟁력의 기반은 윤리경영, 회계투명성과 같은 탄탄한 지배구조가 아닐까 합니다.



세아베스틸 동반성장팀 양선진 대리

ESG 경영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기는 쉽지 않지만, 개인이 ESG 경영에 보탬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아베스틸 공장 내에는 많은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종이 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 사용을 동료들에게 권장하고 있으며 저 또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탄소배출 저감 등은 설비의 개선 등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해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일회용품인 종이컵 대신 텀블러 등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노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SG 차원에서 세아가 마련했으면 하는 제도나 개선점이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세아항공방산소재 재무팀 최주식 팀장

주기적으로 ESG의 개념과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ESG는 어떠한 배경에서 등장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나 제도들이 ESG에 해당되는지, 세아그룹의 ESG 활동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이 있겠네요.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ESG를 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CEO Message

“더 바르고, 선한 방향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세아홀딩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녹록하지 않은 경영 환경이 예상되나, 기본에 충실한 사업 운영과 그룹 경영철학인 “정도 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에 첫 발간한 ‘세아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이어, 올해는 ‘세아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세아홀딩스의 ESG 비전과 그간의 성과를 이해관계자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아홀딩스의 ESG 경영에도 의미 있는 성과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기업윤리 평가기관인 에티스피어로부터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숙한 윤리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영진과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준법·윤리경영을 실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ESG 경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성을 담고 있는 “We Grow with Good & Right Way”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사람·사회·지구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ESG 가치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아홀딩스 계열회사가 공통된 방향성을 가지고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세아홀딩스만의 성장 스토리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보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사회 중심 경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 평가제도와 이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BSM(Board Skills Matrix)을 도입하여 이사회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세아홀딩스는 앞으로도 철을 통한 가치 창조, 사람·사회·지구에 대한 존중을 통해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세아홀딩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도전과 혁신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양 영 구



Outro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고 선한 영향력을 꿈꾸며 세아는 더욱 노력합니다.
세아의 모든 구성원들과 이해 관계자들,
지역과 사회 나아가 지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3자 검증의견서

세아홀딩스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 귀중 NICE평가정보(이하 '검증인')는 세아홀딩스로부터 '세아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4(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제공을 요청받았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 및 주장에 대한 책임은 세아홀딩스에 있고, 세아홀딩스가 보고서에 공시한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검증 결과로 독립적인 검증 의견이 작성되었습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 검증은 국제검증기준인 AA1000AS v3 검증표준(Type 2)을 적용하여 Moderate 수준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 Standards 2021에 따른 작성 콘텐츠의 검토가 포함되었습니다.

- AA1000AP(2018)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 영향성Impact 검토
- 보고서 자료 및 성과지표의 신뢰성 검토
- GRI Standards 2021 보고 원칙 검토
- GRI Standards 2021 준수(reporting in accordance with the GRI Standards) 여부 검토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중요 주제와 연결된 GRI Standards 2021의 주제별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고 검증하였습니다.

No.	중요 주제	Topic-specific Standard	
		해당지표	보고지표
1	기후변화 대응	201-2, 302, 305	302-1, 302-3~302-4, 305-1~305-2, 305-4~305-5, 305-7
2	안전한 사업장 조성	403	403
3	윤리/준법 경영 추진	205, 206	205, 206

검증 대상 및 방법 검증인은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을 이행하였습니다.

-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품질 검토
- 핵심 이슈의 선정 방법 및 결과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이중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검토
- 도출된 중대 이슈와 연관된 보고서 자료 신뢰성 및 성과지표 검토
- 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 측면의 전략, 약속, 계획과 관련된 담당자와의 인터뷰
-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공시자료(사업보고서, 홈페이지 등) 검토
- 보고된 성과의 데이터 생성, 관리, 보고 과정 등 내부 관리 시스템 확인(샘플링 방식)
-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정보의 근거 적합성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세아홀딩스 본사 방문)

제한 사항 검증인은 상기의 검증 기준 및 범위에 따라 보고서에 기술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보고된 데이터의 일부는 사업보고서 및 전자공시시스템 등 외부공시 출처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외부에 게시된 자료는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증인은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현장검증 시 각 성과 담당자를 통한 근거 확인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세아홀딩스에서 제공한 관리 프로세스 및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였으며, 보고서에 명시된 보고 경계 외의 협력회사, 계약자 또는 제3자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는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증 결과 및 의견

검증을 수행한 결과, 검증인은 검증 기준 및 범위, 대상에 따른 방법에 근거하여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각 원칙에 따른 검증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성(Inclusivity)

세아홀딩스는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고객, 임직원, 협력사, 정부·지역사회, 주주·투자자로 정의하고 각 그룹별 특성을 고려한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경영에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요성(Materiality)

세아홀딩스는 중대 이슈 선정을 위하여 중대성 평가를 이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ESG 이슈풀 구성, 미디어분석, 벤치마킹, 이해관계자 설문 등을 통한 사회·환경 중요도 분석과 ESG 전략 연계성 정량화,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등을 재무적 중요도 분석을 토대로 중대 이슈를 선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대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3개 핵심 이슈는 보고서에 누락없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응성(Responsiveness)

세아홀딩스는 그룹사 대표이사의 협의체인 그룹 사장단 회의 운영을 통해 ESG 관련 안건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을 통해 ESG 경영활동 관련한 안건을 상정 및 의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사항과 기대를 반영하기 위하여 고객센터 운영, 임직원 소통채널(사내 인트라넷, 설문조사 포함),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의 내·외부 소통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렴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영향성(Impact)

세아홀딩스는 중요 주제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량지표를 설정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활동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파급되는 가치를 분석하여 그 영향도를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성과정보의 신뢰성

검증인은 세아홀딩스의 중대이슈를 중심으로 데이터 샘플링과 근거 자료 등에 기반하여 성과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의도적인 오류나 잘못된 정보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아홀딩스는 지난 3개년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보고하여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검증 과정 중에 발견된 일부 오류 등은 보고서 발간 전 수정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권고 사항

검증인은 세아홀딩스의 그룹 사장단 회의 참여를 통해 대내·외 ESG 관련 법·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이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세아홀딩스 산하 계열사의 ESG 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 최초로 Ethisphere가 선정한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등재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검증인은 향후 세아홀딩스의 지속가능성 성과 개선을 위해 다음 내용을 권고합니다.

1. ESG 성과 관리의 고도화를 위하여 이슈별 관리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측정하고, 측정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2.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중대 이슈의 관리는 기업환경 변화의 대응성 측면과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중요하므로 도출된 중대 이슈별 핵심 KPI를 설정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세아홀딩스로부터 검증을 의뢰받은 NICE평가정보는 영국 어카운터빌리티사의 AA1000 라이선스를 보유한 검증기관입니다. 본 검증은 ESG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검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검증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고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NICE 평가정보(주)   AA1000 Licensed Report 000-984/V3-PDYTI 2024. 06.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 **신희부** 

SeAH 세아홀딩스